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레딩에 대학은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자체는 대학 자체가 다운타운이나 업타운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숲에 둘러싸여 있어 커보이지만 실제로 캠퍼스를 둘러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보로 충분히 캠퍼스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수업 건물들 같은 경우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1층 혹은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들로 캠퍼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캠퍼스 밖은 도로와 숲밖에 없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웹 디자인 수업자체는 그리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못따라 갔다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업시간에 충실하면 수업 때 배운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겠다면 주저 없이 가르치는 분에게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려 해주십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모르시거나 헛갈리면 바로 도움요청하면 됩니다. 영어수업 같은 경우 처음 과제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업도 타이트해서 이에 대해 문의를 넣었고 이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졌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레딩 주변에 있는 관광지나 볼 만한 곳을 다 둘러봐 줍니다. 대부분 알합니다. 그리고 가는 데 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부분 오후에 이루어졌기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선크림과 선글라스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가비용 같은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 같은 것을 챙겨가면 물값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곳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기념품을 사고자 한다면 비용이 그만큼 어느정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필드트립을 가는 곳에서의 기념품가게들의 기념품들의 물가는 최소 10\$ 이상은 됩니다. 다만 필드트립을 갈 때 쇼핑할 수 있는 시간 그리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꽤나 덥고 건조합니다. 항상 대략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36~40도를 유지합니다. 해 자체도 늦게 지는 편입니다. 8시는 지나야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선글라스까지는 몰라도 선크림은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했듯 굉장히 건조합니다. 피부가 그거에 예민한 사람은 대비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일단 가기 전에도 그렇게 도착해서도 주의 쫓던 것이 혼자 다니지 말 것! 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총기허가가 되는 곳이고 샤스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레딩이란 도시가 그리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캠퍼스 안에는 시큐리티가 있어 혼자 다니는 것에 그리 위험성이 없지만 캠퍼스 밖에서는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캠퍼스를 밖을 가려면 샤스타 학생들의 차를 얻어타고 나가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시설 좋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었고 굉장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룸메랑 사는 것이고 2인 1실입니다. 친해지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같은 경우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식당에서 먹었지만 수업이 다 끝난 후 저녁식사시간 같은 경우 나가서 먹어서 경우가 꽤 있었습

	니다. 샤스타 대학도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식당에서 먹는 사람이 그리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메뉴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게 로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대중교통을 탈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있긴 하지만 보기 정말 힘듭니다. 3주동안 지내면서 버스 4~5번 보고 택시 2번 봤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대부분 이동합니다. 그렇기에 도착해서 본인의 룸메 혹은 차를 가지고 있는 샤스타 학생과 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많은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약 200,000	외식, 간식,
쇼핑	약 200,000	기념품, 선물, 옷
기타	약50,000	프로그램외 개인적인 액티비티 비용
합계	4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선크림과 선글라스 잘 챙겨야 합니다. 샤스타 친구들과 정 들면 선물 같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한국적인 선물 여러 개 준비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돼지코 잊지 말고, 멀티탭 준비해서 가면 편리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글로벌 빌리지를 살아서 레딩에서 온 친구들을 이미 몇 알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학기를 같이 보내며 알았던 친구 2명이 같이 참여 했습니다.

그 친구들 덕에 다른 샹스타 학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주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동안 매일매일 같이 보고 생활하니 인연이란 것이 굉장히 그 시간동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샹스타 학생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 본인들도 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에게 어디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주고 데려다주는 것이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데에 비언어 소통으로도 충분히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언어가 된다면 더욱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바디랭귀지 만으로도 그 사람과 공감하고 웃고 인연을 쌓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 있는 커먼스 건물 모습입니다. 커먼스 건물은 주방과 오락거리, 거실같은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교내식당모습



샤스타 댐



Burney Fall



샌프란시스코 항구 모습전경



crystal geyser factory

